



두 사람의 선택

2001년, 미국의 버크 헤지스(Burke Hedges)라는 사람이 『The Parable of the Pipeline(더 패러블 오브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파블로(Pablo)와 브루노(Bruno)라는 두 친구가 등장한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두 사람은 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마을 가까운 강에서 물을 떠다 마을 광장의 물탱크에 옮길 때마다 양동이 하나당 1페니씩 주겠다고 결정했고,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물을 나르느냐에 따라 하루의 수입이 달라지는, 즉 그들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친구는 열심히 물을 날랐다. 브루노는 부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며 좋아했다. 하지만 파블로는 무거운 물통을 나르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느끼며, 이 일은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파블로는 브루노에게 양동이를 힘들게 물을 나르지 말고, 강에서 마을 광장의 물탱크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브루노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다. 브루노는 자신이 하루에 물 100통은 거뜰히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자신이 사고 싶은 신발도 사고 한 달이면 당나귀도 살 수 있다며, 파이프라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에 만족했다. 그러자 파블로는 혼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하루 중 일부는 물을 나르는 데 사용했고, 남은 시간과 주말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당장 파블로의 수입은 줄었고, 브루노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파블로를 조롱했다.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날라 집도 마련하고 당나귀도 구입했다. 그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식당에서 비싼 음식도 먹었다. 그러나 처음 몇 달간 파블로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다. 파블로는 꾸준히 일했고 마침내 파이프라인이 완성됐다. 신선한 물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마을에 공급되었다. 파블로는 더 이상 무거운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물통을 계속해서 나르던 브루노의 어깨는 늘

어졌고,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브루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각자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또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매일의 삶, 선택의 연속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삶은 출생(B)과 죽음(D) 사이의 선택(C)이다!(Life is C between B and D)” 이 말에서 C는 영어의 선택을 뜻하는 Choice, B는 출생을 뜻하는 Birth, 그리고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를 가리킨다. 즉, 사르트르는 사람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의 한 유명 언론사는 미국에 사는 성인들이 하루 평균 35,000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보도했다.* 각자 살아가는 상황과 처한 환경에 따라 선택의 횟수는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많은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일어날지 아니면 좀 더 여유를 가질지를 선택하고, 아침 식사를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한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도 선택한다. 집을 나서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한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끊임없는 선택으로 점철된다.

★ Jim Sollisch, "The Cure for Decision Fatigue",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0, 2016.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도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근거로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며 선택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르다.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니 인생 선배의 조언을 따르든, 책에서 방법을 찾든,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든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납득된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세대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까?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어떤 때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 섬기기보다 높아지려는 시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제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마 19:16-22)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해요(막 10:35-45)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요(마 18:21-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

